

이대목동병원, 개원 27주년 기념식 “서남권 응급센터, 상급병원 추진”

리모델링 통해 700병상 마련
융복합 헬스케어 허브 구축
“치료 넘어 돌봄의 가치 실현”

이대목동병원이 6일 개원 27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 규모로 치러진 이번 기념식에는 유경하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비롯해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한재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모범직원과 장기근속자 시상식도 열려 영상의학팀 홍다미 방사선사 등 6명이 의료원장상을, 51명동 김에스더 간호사 등 10명이 병원장상을 수상했고 최수전 보험심사팀장 등 장기근속자 50명이 포상을 받았다. 유경하이화의료원장은 격려사에서 “133년 전 서양의학을 들여오고 기초를 세운 ‘보구녀관’의 자존심을 이대목동병원이 계승했다”며 “진취적이고도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 기념식이 개원 27주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함과, 희생과 헌신의 기독교 정신에 기반을 둔 이대목동병원은 치료를 넘어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개원 27주년을 맞은 이대목동병원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코로나 19 방역 및 치료를 담당하는 중증 환자 전문 치료 병원으로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산학협력단을 기반으로 연구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올 7월 이대목동병원은 대대적인 병동 리모델링을 통해 700병상 규모로 재

탄생했다. 또한 모든 병상에 음압을 걸 수 있는 감염전문병동을 증설, 현재 중증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또 IT, BT 산학협력 기업 10곳이 의학과에 입주해 교수와 함께 연구하는 ‘첨단 융복합 헬스케어 기술개발허브(R&BDHUB)’를 구축했다.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은 “각고의 노력으로 모든 신청 요건에서 기준 이상을 만족시킨 만큼, 상급종합병원 재진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대웅제약, ‘이나보글리플로진’ 임상3상 승인

(당뇨병치료 신약)

전국 30개 대형병원서 임상시험
포도당 재흡수 수용체 선택적 억제

대웅제약은 SGLT-2 수용체 억제제 신약인 ‘이나보글리플로진’의 단독 사용과 메트포르민 병용 사용에 대한 임상 3상을 동시에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발 중인 SGLT-2 당뇨병치료 신약 ‘이나보글리플로진’의 단독요법, 메트포르민 병용 요법 각각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

는 3상 임상시험을 동시에 승인 받았다.

단독 사용 임상시험은 제 2형 당뇨병 환자 14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전국 30여개 대형병원에서 진행한다. 또한 메트포르민으로 혈당 조절이 불충분한 제 2형 당뇨병 환자 190여명 대상의 메트포르민 병용 사용 임상시험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전국 30여개 대형병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나보글리플로진’은 콩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에 관여하는 SGLT2수용

체를 선택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포도당을 직접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기전의 SGLT2 억제제로, 지난 9월 국제학술대회 2020 ICDM에서 성공적인 임상 2상의 결과를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임상 2상시험 결과, 혈당 조절의 주요 지표인 당화혈색소(HbA1c)의 12주 후 변화량은 위약 대비 약 0.9%로, 이는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기존 SGLT2 억제제보다 약 30% 이상의 효과적인 감소를 확인한 결과이며, 향후 3상에서 더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세경 기자



5일 경기도 용인의 GC녹십자 본사에서 허일섭 GC(녹십자홀딩스) 회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과 임직원들이 53주년 창립기념식을 갖고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GC녹십자, 창립 53주년 기념식 진행

코로나 방역 지침 맞춰 인원 최소화

GC녹십자가 지난 5일 창립 53주년을 맞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본사 목암빌딩에서 창립기념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맞춰 표창

수상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허일섭 GC(녹십자홀딩스) 회장은 창립기념식을 통해 “53년 동안 정도의 길을 함께 걸으며 회사를 성장시켜온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시대 변화를 새로운 사업과 연계해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교촌에프앤비 증권신고서 금감원 제출

교촌에프앤비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5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절차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이번 공모를 통해 580만주를 발행할 계획이다. 공모 희망가는 1만600원~1만2300원으로 총 공모금액은 614.8억원~713.4억원이다. 10월 28일, 10월 29일 양일간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된 후 11월 3일~4일까지 청약은 받는다. 11월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예정이며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다.

교촌에프앤비(이하 교촌)의 상장 도전은 유가증권시장 외식 프랜차이즈 1호 직장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교촌 관계자는 “본 상장을 통해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 또 다른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제약바이오協, BD전문가 육성교육 실시

(사업개발)

EBD아카데미·씨큐브랩 협업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11월부터 4주 동안 ‘사업개발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협회가 추진하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GOI) 전략에 따라 글로벌 진출에 핵심적인 BD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BD는 회사 성장을 견인할 신제품을 도입하거나 관련 기관·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주도하는 직무로, 기술수출(라이선싱아웃)과도 밀접하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와 활발한 신약개발을 통해 꾸준한 기술수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 기술수출 규모는 총 14건(약 8조 5022억원 규모)에 달하며, 올해도 이달 기준 5건(약 6조 9728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이 이뤄진 바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국내 제약바이오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이에 따른 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이전, 계약·협상 등에 대한 BD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이사장단 회의를 거쳐 글로벌 BD 심화 교육과정(PBD)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은 세계적인 바이오파트너링 포럼을 개최하는 EBD그룹 내 제약바이오 특화 교육을 담당하는 EBD아카데미,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 씨큐브랩이 협업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수요에 맞춘 두 단계 심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세경 기자

GC녹십자엠에스, 유럽시장 총회무진

코로나 진단제품들 연이어 공급 계약
폴란드·스위스에 1900만 달러 수출

GC녹십자엠에스가 현장진단(POCT) 제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까지 유럽시장 공략에 나섰다.

진단시약 및 의료기기 전문기업 GC녹십자엠에스는 폴란드 기업인 핸드프로드와 1100만 달러 규모의 혈당측정기 및 당화혈색소 측정시스템, 스위스 기업인 메디시스와 80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형광면역 항원진단키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두 계약을 합친 이번 총수출 계약 규모는 19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번 계약을 통한 제품의 대부분은 유럽시장에 공급될 계획이다.

GC녹십자엠에스는 핸드프로드와 자사 POCT 전략품목인 혈당측정기와 당화혈색소 측정시스템 ‘그린케어 에이원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총 5년으로, 두 제품 모두 폴란드에 공급될 예정이다.

회사측은 이번 계약으로 기존 두 제품의 주력 시장이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를 넘어 유럽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도 이어졌다.

GC녹십자엠에스는 메디시스와 코로나19 콤보진단키트를 수출 계약을 체결해 스위스, 프랑스, 알제리 등에 이번 달부터 공급한다. 이 콤보진단키트는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와 인플루엔자 진단키트의 결합제품으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럽에서의 높은 수요가 기대되고 있다.

안은익 GC녹십자엠에스 대표는 “유럽은 이미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점차 커지며 자사의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진단키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 POCT 사업과 더불어 10월 말 계획된 형광면역 코로나19 진단키트까지 수출허가를 받는다면 수출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풀무원 가쓰오·고기우동 2종 출시

쌀쌀해지는 날씨에 늘어나는 국물 요리 수요에 맞춰 풀무원이 겨울철 대표 면 요리인 우동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풀무원식품은 깊고 진한 국물 맛이 뛰어난 정통 우동 ‘가쓰오 진(眞)우동’과 볶은 소고기, 소고기 육수를 함께 끓여내 구수한 퓨전 우동 ‘고기뭇배기우동’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가쓰오 진 우동’은 정통 우동의 풍미를 탄탄하게 구현한 우동이다. 가쓰오부시(훈연고등어포)와 사바부시(훈연고등어포) 2가지 부시를 3단 추출(침출-열수-순환)해 깊고 진한 빈틈없는 맛을 냈다. 기존 가쓰오부시 우동 특



‘가쓰오진 우동’(왼쪽), ‘고기뭇배기 우동’(오른쪽)

/풀무원

유의 훈연 풍미에 사바부시의 감칠맛을 더해 맛의 균형을 맞췄다.

‘고기뭇배기 우동’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퓨전 우동이다. 고기, 사골을 전통 가마솥 방식으로 푹 우려내 진하고 구수한 맛을 낸다. 고슬고슬 볶은 소고기와 구수한 소고기 육수를 함께 끓여 완성한 진한 맛이 입맛을 사로잡는다.

/조효정 기자